

보도 일시	2022. 11. 23.(수) 11:00 11. 24.(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11. 23.(수) 09: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531)
		담당자	사무관 정성문 (044-201-1539)

'농촌에서 살아가기', 귀농귀촌 길잡이로 자리매김

- '농촌에서 살아가기' 참가팀과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성과 공유회 개최 -
- 횡성 '산채마을', 제천 덕산누리마을 참가팀 '뚝딱이들', 최우수상 수상 -

주요 내용

- 2022년 '농촌에서 살아가기'에 전국 95개 시군, 119개 운영마을에 총 842가구 참여(10월 말 기준), 이 중 106가구(12.6%)가 농촌 전입
 - 예비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높은 호응
- '농촌에서 살아가기' 운영마을 및 참가팀 우수사례 발표회 결과

구 분	최우수상	우수상
①귀농·귀촌형 운영마을	횡성군 산채마을	청도군 당호리마을
②프로젝트참여형 청년팀	제천시 덕산누리마을 '뚝딱이들' 팀	당진시 백석올미마을 '당귀비' 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11월 22일 농정원 대강당에서 '2022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올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참가팀과 운영마을을 포상하며 격려했다.

‘농촌에서 살아가기’(이하 ‘살아가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여건 등을 미리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살아가기’는 전국 88개 시군, 104개 운영마을에 649가구가 참여하였고, 이 중 73가구(11.2%)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성과를 보였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95개 시군, 119개 운영마을에서 842가구가 참여했으며, 이 중 106가구(12.6%)가 농촌으로 전입하며 정부의 대표적인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 2022년 ‘농촌에서 살아가기’ 운영현황 >

(단위: 개)

구 분	합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참여시군	95	1	8	10	11	13	21	18	11	2
운영마을	119	1	8	16	13	14	27	21	17	2
귀농형	36	1	4	5	4	6	6	7	3	-
귀촌형	76	-	4	9	8	7	19	14	14	1
프로젝트참여형	7	-	-	2	1	1	2	-	-	1

* ‘프로젝트참여형’은 지역공동체가 도시청년(40세 미만)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제안하고, 참가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

참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식품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살아가기’로 얻은 가장 큰 성과로 ‘귀농귀촌 정보 습득’과 ‘참가 시군에 대한 이해’,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꼽았다.

* (복수응답) 귀농귀촌 정보 습득(52%) > 참가 시군에 대한 이해(24) > 지역 내 인적 네트워크(19)

운영마을에서는 ‘살아가기’ 운영을 통해 ‘지역 활력 회복’ 및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 지역 활력 회복(33%) ·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33%) > 마을 수익 창출(17%)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는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부문’과 ‘프로젝트참여형 청년팀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 발표회에 참여한 운영마을(22개) 및 프로젝트참여형 청년팀(6팀)을 대상으로 사전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결정

귀농·귀촌형 운영마을 최우수상은 강원도 횡성군의 산채마을이 차지하며 농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

산채마을은 ‘에이비씨(ABC) 귀농귀촌 교육’이라는 부제로 ‘살아보기’를 진행하며, 귀농귀촌을 위한 농업(Agriculture), 사업(Business), 교류(Connect) 중심의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직접 생산한 옥수수, 파리고추 등을 판매하여 2천 9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참가자 중 3가구 6명이 횡성군으로 전입했다.

< 횡성군 산채마을 소개 >

■ 프로그램 주요내용

- (운영기간·참가자) 4.1~10.31(7개월*) / 총 6가구 10명 / 전입 3가구 6명
 - * 당초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횡성군·마을에서 1개월 추가 지원
- (프로그램) ‘에이비씨(ABC) 귀농귀촌 교육’이라는 부제로 ‘살아보기’를 진행하며,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Agriculture), 사업(Business), 교류(Connect) 중심의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가구(팀)별 텃밭(각 165㎡) 및 공동경작지(약 1만㎡) 운영, 수확·판매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특히, 마을에서는 개인의 관심사항에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1:1 멘토를 지정 운영했으며, 마을축제 운영지원, 농촌체험 진행, 농가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경험 지원
- (주요성과) 직접 생산한 옥수수, 파리고추 등을 수확하여 농협·유통법인, 온라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 2천 9백만 원의 매출 성과
 - 6가구 중 3가구(6명)가 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성○○씨(63세)는 인근 사찰의 템플스테이 팀장으로 취업하여 연내에 이주할 계획

■ 참가자 소감

- (류○○, 60세) “영농을 막연히 준비하고 있었으나, ‘살아보기’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
 - ⇒ 류○○씨는 마을 소개로 하우스 330㎡, 농지 3,300㎡를 임차하여 영농 준비 중
- (박○○, 60세) “직접 기른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삽교리 주민들과 나눌 때 나도 이 마을의 주민이 되었음을 느꼈다”
 - ⇒ 부부가 함께 참여한 박○○씨는 횡성읍으로 전입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내년 농사 준비 중

프로젝트참여형 최우수상은 마을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목공방을 기획하고 운영한 충북 제천시 덕산누리마을 참가팀 ‘뚝딱이들’이 차지했다.

박○○씨(31세) 등 4명의 도시 청년으로 구성된 ‘뚝딱이들’ 팀은 제천시 덕산면에서 6개월간(4월~10월) 지내며 농촌 마을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직접 운영하였다.

마을 도서관과 지역 관공서에 책 거치대(북 스탠드) 등 목공품을 제작, 납품하여 7백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리는 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농촌지역에서의 창업 및 정착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공 기술을 익혀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박○○씨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번에 팀원으로 만난 김○○씨(36세)와 함께 마을에 남아 목공방을 계속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 제천시 덕산누리마을 ‘뚝딱이팀’ 소개 >

■ 프로젝트 주요내용

- (운영기간·참가자) 4.18~10.17(6개월) / 4명
- (프로젝트) 마을 내 목공방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 농촌 마을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목공품을 주문받아 제작·납품하고 노후화된 집·가구 등을 수리
 - 목공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 체험
- (주요성과) 마을 도서관, 지역 관공서에 책 거치대(북 스탠드) 등 목공품을 제작·납품하여 7백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림

■ 프로젝트 참가 청년 소감 : 박○○(31세)

- “하던 일을 그만두고 목공 기술을 익혀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중 ‘목공방 운영’이라는 프로젝트가 맘에 들어 지역에서 직접 일과 삶을 경험해보기 위해 참여하였다.”
 - “역할과 목표가 뚜렷한 프로젝트참여형 ‘살아보기’ 였기에 구체적으로 농촌살이를 위한 직업과 주거 정착을 고민해볼 수 있었다.”
- ⇒ 박○○씨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팀원으로 만난 김○○씨(36세)와 함께 마을에 남아 목공방 운영을 계속해나갈 예정

‘살아보기’ 운영마을 119곳의 현황, 참가자의 체험후기 등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라며, “내년에는 전국 102개 시군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민의 귀농귀촌 준비 및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요약



□ 귀농 · 귀촌형 운영마을

구 분	주 요 내 용
최우수상 【형성 산채마을】 (귀농형)  	▶ (운영기간·참가자) 4.1~10.31(7개월) / 총 6가구 10명 / 전입 3가구 6명 ▶ (프로젝트) 'ABC 귀농귀촌 교육'이라는 부제로 '살아가기'를 진행, 귀농귀촌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업(Agriculture), 사업(Business), 교류(Connect) 중심의 참가자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참가자들이 주도적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가구(팀)별 텃밭(각 165㎡) 및 공동경작지(1만㎡) 운영, 수확·판매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농업의 이해도를 높임 - 특히, 마을에서는 개인의 관심사항에 맞춰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1:1 멘토를 지정 운영했으며, 마을축제 운영지원, 농촌체험 진행, 농가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지원 ▶ (주요성과) 직접 생산한 옥수수, 파리고추 등을 수확하여 농협·유통법인, 온라인, 직거래 등을 통해 판매, 29백만원의 매출 성과 ▶ (참가자사례) 3가구(6명)가 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성○○씨(63세)는 인근 사찰의 템플스테이 팀장으로 취업하여, 연내에 이주할 계획
우수상 【청도 당호리마을】 (귀촌형)  	▶ (운영기간·참가자) 5.9.~6.7, 9.15.~10.14(1개월, 2기수) / 6가구 6명 / 전입 3가구 3명 ▶ (프로그램) 지역 적응을 위한 지역일자리 연계 및 지역민 교류 프로그램과 이주 후 정착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집중 지원 - 청도사랑 일자리 지원센터 연계 및 청도 일자리 공작소 구성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일자리 지원 확대, 우수농가 현장 방문 교육(딸기·새싹삼·열대과일 등 8곳) - 지역이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여 정착 유도 * 빈집정보 활용 '설레집', 지역 '귀농인의 집', 농부 인턴십 '청도 두레', 청도형 귀농닥터 '청도통' - 고령자 비중이 높고 이주민이 적은 마을 특색에 따라 청도군귀농 귀촌연합회와 함께 '지역융화'를 위한 재능기부 활동 진행 ▶ (주요성과) 1기 참여자 1가구는 프로그램 종료 후 청도에 정착하여 마을을 홍보하는 '동네작가'로 활동하며 예비 귀촌인들의 지역탐색 지원, 2기 참가자 전원(3명) 청도군 정착 희망하여 농지 및 거주지 구입을 위한 탐색 중

구 분	주 요 내 용
장려상 【화순 백운마을】 (귀농형) 	▶ (운영기간·참가자) 4.1.~11.30.(7개월) / 8가구 10명 / 전입 2가구 2명 ▶ (프로그램) 마을 영농전수단(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멘토)과 함께하는 영농 실전 체험(작목 선택 및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 설계 지원), 선배 귀농귀촌인과의 만남을 통한 유대 강화(현장 중심의 귀농귀촌 이해·로컬푸드를 통한 농작물 유통 및 판매·스마트팜 교육 등) - 특히, 마을 특산물인 청풍 더덕 심기(200평 규모) 및 직접 판매(전통 시장, 직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1.6백만원), 포털 블로그를 신설하여 판로개척 및 홍보 - 화순군 귀농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기술 습득 독려 ▶ (주요성과) 1가구(1명)는 화순 전입, 다른 1가구(1명)는 장흥 전입 ⇒ 프로그램 종료 후, 화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귀농인의 집 등 정보 공유, 운영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 사후관리

□ 프로젝트참여형 참가팀

구 분	주 요 내 용
최우수상 【제천 덕산누리마을】 ‘뚝딱이들’팀 	▶ (운영기간·참가자) 4.18~10.17(6개월) / 4명 / 전입 3명 ▶ (프로젝트) 마을 내 목공방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 농촌 마을에서 목공방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에 필요한 목공품을 주문받아 제작·납품하고 노후화된 집·가구 등을 수리하며 목공방 직접 운영 - 목공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사회적경제 체험 ▶ (주요성과) 마을 도서관, 지역 관공서에 북스탠드 등 목공품을 제작·납품하여 7백만원의 매출 성과를 올림 ⇒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농촌지역에서의 창업 및 정착 가능성 확인 ▶ (참가자사례) 박○○씨(31세)는 ‘살아보기’ 기간 동안 가구제작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팀원으로 만난 김○○씨(36세)와 함께 마을에 남아 목공방 운영을 계속해나갈 예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우수상 【당진 백석올미마을 ‘당귀비’팀】 	▶ (운영기간·참가자) 5.9~11.8(6개월) / 4명 / 전입 3명 ▶ (프로젝트) 농촌에서 '로컬에디터(지역농산물 판매기획자)'로 살아가기 - 지역생산자 영농스토리, 생산물 등을 홍보 콘텐츠로 제작, 온라인 플랫폼(사회적기업 '농사펀드')에 게시, 중소농가의 판로 개척 지원 ▶ (주요성과) 지역 중소농가(5농가) 농산물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게시, 실 매출(46백만원, 고구마·자두·사과·멜론 등) 성과 ▶ (참가자사례) 참가자 전원 당진 정착을 위한 다양한 후속 활동 전개 ⇒ 당진 청년창업 및 취업 타운 '나래' 입주(1명), 신활력플러스사업 코디네이터 활동(1명), 청년창업농 선정 및 체험농장 시범운영(1명), 사회적농장 취업과 창업을 위한 탐색중(1명)
장려상 【완주 씨앗문화예술 협동조합 '고사리탐험'팀】 	▶ (운영기간·참가자) 5.1~7.31, 9.1~11.30(각 3개월 2기수) / 8명 / 전입 6명 ▶ (프로젝트) 지역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로컬 콘텐츠 제작 - 완주지역의 로컬플랫폼 '씨앗'과 함께, 지역이해와 탐방을 통해 향후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실행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네트워크를 구축 ⇒ 참가자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환영을 받고 이주 정착에 대한 자신감·소속감 제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 ▶ (주요성과) 지역주민 음식나눔(요일식당), 제조 막걸리 상품화 및 유통·판매, 지역시장 장바구니 제작 및 기증(고산미소상인회), 지역 살이 이야기를 담은 그림·스토리텔링 전시회 개최